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

그 의미에 대한 가설

宋 洛 憲

Pope의 “Elegy”는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기묘한 한편의 시이다. 18세기적 理性과 節度와 분별의 대변자이며 이것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비평가이며 풍자 시인인 Pope의 시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친 감정과 感傷을 노정하고 있다. 여기에 애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女人이 누구이며 과연 실재의 인물인지, 그녀와 시인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하는 傳記的 문제 외에도, 시 전체가 뜻하는 의미도 생각하기보다 명확하지 않다. 얼른 보기에 사랑을 위하여 자결한 여인, 그리하여 장례식과 교회 안의 매장이 거부된 여인에 대한 동정과 위안이 이 悲歌의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유일한 위안은 들의 꽃들이 그녀의 무덤을 장식해 주고 아침의 이슬이 눈물 흘려 준다는 것 뿐이다. 이것은 너무 진부한 위안으로서 그녀의 넋을 달래기에 미흡한 느낌이다.

Yet shall thy grave with rising flow'rs be drest,
And the green turf lie lightly on thy breast:
There shall the morn her earliest tears bestow,
There the first roses of the year shall blow;
While angels with their silver wings o'ershade
The ground, now sacred by thy reliques made. (63-68)¹⁾

죽으면 땅에 묻혀 흙이 되고 그 흙에서 풀이 나고 꽃이 핀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공통된 운명이므로 이것은 별다른 위안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그 바로 다음의 귀절에서는 착한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이거나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되고 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So peaceful rests, without a stone, a name,
What once had beauty, titles, wealth, and fame.
How lov'd, how honor'd once, avails thee not,
To whom related, or by whom begot;
A heap of dust alone remains of thee,
'Tis all thou art, and all the proud shall be! (69-74)

이 불행한 여인을 진정 위안하고 그 혼을 달래 주려면, 사후에 그녀는 천국에서 지복한 영생을 누리고, 그녀를 괴롭히던 교만한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해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가는 차라리 세번째 문단(文段), 즉 그녀의 거룩한 영혼은 이

1) 이 시의 인용은 The Twickenham Edition of the Poems of Alexander Pope의 제Ⅱ권, Geoffrey Tillotson편, *The Rape of the Lock and Other Poems*에서 하고 인용후 괄호 속에 행수를 표시하기로 함. 또 이책은 각주에서 Twickenham Ⅱ로 표시하기로 함.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 일찍이 그녀와 동질의 혼들이 있는 하늘로 올라 갔다는 주장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어야 할 것이다.

From these perhaps (ere nature bade her die)
Fate snatch'd her early to the pitying sky.
As into air the purer spirits flow,
And sep'rate from their kindred dregs below;
So flew the soul to its congenial place,
Nor left one virtue to redeem her race. (23-28)

그러나 한편 “Lycidas”를 비롯한 대개의 비가나 哀悼詩가 그 슬픔을 계기로 삼아, 더 넓은 사상·감정을 피력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라면, Pope의 비가에도 개인적인 슬픔 속에 더 보편적인 사상이 담겨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이 시의 진정한 의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의미로서 가능한 것 중의 하나는 두개의 相馳하는 가치관의 대립과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의 애도의 대상인 여인은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있는 보호자인 숙부의 반대로 인하여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응졸한 삶을 사느니 보다 용감하게 자살을 했고, 죽은 후에도 이 세상은 그녀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비가를 읊고 있는 젊은 시인, 즉 이 시의 화자(speaker)는 그 응졸하고 몰인정한 세상을 비난하고 그 여인의 영웅성을 찬양하고 있다. 즉,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영웅적 인생관과 그녀의 숙부가 대표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Christopher Gillie도 이와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여주인공의 가슴에서 불타던 “ambition”(13~16행)은 세속적 무리들의 교만(43행, 74행)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나서, “The theme of the poem, then, may be said to be moral heroism at war with moral meanness,”라고 주장하고 이것은 다음 귀절에서 명백하다고 했다.²⁾

Most souls, 'tis true, but peep out once an age,
Dull sullen pris'ners in the body's cage:
Dim lights of life, that burn a length of years
Useless, unseen, as lamps in sepulchres:
Like eastern kings a lazy state they keep,
And close confined to their own palace, sleep. (17-22)

이 세상의 대개의 인간은 육체의 감옥 속에 갇혀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보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 하는 산 승장(death-in-life)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응졸한 인간들이 「위대하게 생각하고 용감히 죽는 자들」(10행)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Mayard Mack도 위 귀절의 소위 형이상학적 image를 논하면서 이 시에 death-in-life와 life-in-death의 대립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Pope rarely uses these extensive collocations of witty and ingenious images, and...when he does, it is almost always to establish something that his poems intend to disvalue—here a

2) Christopher Gille, “Pope: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 *Interpretations*, ed. John Wain, 2nd ed., (London and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2), pp.79-80.

death-in-life theme, contrasting with a life-in-death theme built up around the lady.³⁾

Yasmine Gooneratne도 이 시의 주제가 “heroic individualism victimized by calculating reason”이라고 전제하고, 이 두 요소는 두 가지 감정으로 나타나고 충돌하고 있고, 각각 다른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In our discussion of the poem so far it has emerged that two opposing ‘passions’ appear to struggle for mastery over the speaker’s mind: love of the Lady for whose character and predicament he feels a spiritual affinity, and resentment (rising to hatred) of her unfeeling relatives. In his treatment of the two, Pope alternates wit with sentiment until he brings about a variety of poetic polarization, the relatives being consistently discussed in terms of a closely reasoned, ‘Metaphysical’ logic, while the Lady is treated exclusively in melodramatic or sentimental terms.⁴⁾

이 두 감정의 대립은 결국은 이 시에서 다른 여러가지의 대립, 예컨대, “sense and sensibility,” “reason and feeling,” “the Muse and the Lady,” “pagan and Christian” 등을 조성하게 되고, Pope의 능란한 예술에 의하여 이 대립의 절충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시의 대단원이 이루어진다고 Gooneratne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같은 분석은 매우 명쾌하고 조리있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를 자세히 읽으면 읽을 수록 Gooneratne의 견해는 어떤 도식에 맞추기 위하여 강인부회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선 Maynard Mack와 마찬가지로 Gillie도 여인의 적대자, 또는 산 송장들은 늘 형이상학적인 機智로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이 여인의 혼을 순수한 정기(“purer spirits”)로 비유하고 있는 셋째 문단을 억지로 도의시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야 말로 가장 형이상학적인 것인데 그녀의 적수가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을 묘사하는 비유이다. 또한 그녀를 죽게한 숙부와 그의 집안을 미친듯이 저주하는 네번째 문단의 그 어느 귀절에서도 형이상학적 機智를 찾아 볼 수 없다. 이 보다 더 납득하기 힘든 것은, 여러가지 양극화, 즉 대립을 조성하게 했다고 하는 사랑과 미움의 감정은 결국은 하나의 감정이지, 두개의 서로 충돌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의 대상, 즉 여기서는 여인에 대한 사랑이 곧 그녀의 적에 대한 미움이다. 더군다나 사랑과 미움은 다같이 감정이지, 사랑은 감정이고 미움은 이성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데도, Gooneratne는 사랑 대 미움은 감정(feeling) 대 이성(reason), 다정(sensibility) 대 분별(sense), 감상(sentimental) 대 기지(wit) 등과 같은 등식을 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 여러가지 대립이 마지막에서 두번째 문단에서 화해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즉 이제까지는 이 시의 어느 곳에서도 서로 용납하지 못 하고 영원히 대립하는 듯 하던 두 가치관이, “Tis all thou art, and all the proud shall be!” (74행)라는 한 줄에 나란히 놓여 다 같이 한 줌의 흙으로 되고 단다는 운명을 공유함으로써 화해가 이뤄졌고, 이 화해와 동시에 감정과 이지도 화해를 이룬다는 것이다.

...she is not alone in her fate, for the speaker has been able at last to include her with her

3) Maynard Mack, “Wit and Poetry and Pope,” *Eighteenth Century English Litera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 23.

4) Yasmine Gooneratne, *Alexander P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 72.

false 'Race' in a single line as sharing the ultimate anonymity of death. ...We can see that this is the reconciliation towards which the poem has been all the time progressing; and the headlong drive towards emotionalism and the tendency towards cold, logical intellectualism have been simultaneously reconciled.⁵⁾

그러나 이것은 편견에 의한 해석에 불과하다. 모든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 간다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니, 화해나 타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시의 화자(speaker)의 감정은 흙 속에서의 화해로 만족이나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열하고 응졸한 인간은 물론이요, 고매하고 순결한 사람도 죽으면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인간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Tis all thou art, and all the proud shall be!"라는 한 줄의 끝에 붙어 있는 감탄부호에서, 이 귀절은 평서문이 아니라 감탄문으로 읽어야 하며 이 시인의 운명에 대한 항의와 개탄의 감정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한탄은 국부적인 것이 아니고 이 비가의 전체를 지배하는 감정이라 볼 수 있다. 가슴에 응혈이 낭자한 여인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시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에 이르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는 것은 感傷에 가까운 강한 감정이며 한탄이다. 죽어서도 그 여인의 영혼을 받아 주지 않는 하늘에 대한 원망, 산 송장같은 인간들에 대한 멸시, 일찌기 그런 무리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녀와 같은 고결한 혼들이 사는 하늘 나라에 갔으리라 하는 희망, 불인정한 숙부와 비정한 인간들에 대한 저주, 장례식도 없이 타인의 손으로 숲 속에 묻혀진 불운한 여인에 대한 개탄과 위로, 인간의 운명의 허무함에 대한 한탄, 시인의 마음 속에서나마 살아 있다가 그의 죽음과 더불어 영원히 사라지고 말 여인의 모습에 대한 한탄——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여인의 불운에 대한 한탄이 여러 색조로 변조해 나간 것이다. 따라서 이 비가는 전반적으로 강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성과 감정의 대립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사실 이 비가는 한 청년 시인이 거의 이성을 잃고 한 여인의 불행을 슬퍼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와 셋째 문단의 소위 형이상학적 기지의 비유가 자주 지적되어 왔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형이상학 시들이 보여 주고 있다. 오히려 여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비유는 강한 감정을 나타낼 때가 많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Gillie가 지적하는 moral heroism과 moral meanness의 대립, 또는 Mack가 언급한 death-in-life와 life-in-death의 대조가 이 비가에 분명히 존재하는지도 그리 확실하지 않다. 그러한 대립이나 대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불균형적이어서 그 충돌과 대립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moral heroism 또는 life-in-death의 일방적인 패배에서 이 시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Mack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죽은 여인의 들레에는 죽음을 극복한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녀를 그리는 영상과 언어는 죽음과 망각의 그것 뿐이다.

See on these ruby lips the trembling breath,
 These cheeks, now fading at the blast of death:
 Cold is that breast which warm'd the world before,
 And those love-darting eyes must roll no more. (31-34)

5) Ibid., pp.75-76.

Gillie는 이 여인의 무덤을 묘사하는 영상들이 진부한 장식이 아니라, 떠오름 (buoyancy)을 강조하여, 죽어서도 생명력을 발휘하는 여인의 기운을 암시한다고 강조한다.

If the images are taken together, the descriptive words—*rising* flowers, lie *lightly*, *earliest* tears, *silver* wings—combine to create the impression that, without allowing us to forget that this is a tomb and that we are concerned with death, is at the same time suggestive of the opposite—of springtime and life.⁶⁾

그러나 눈물 같은 이슬이 내리고 꽃이 피어나는 것은 모든 무덤에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것이 생명을 암시하기에는 “A heap of dust alone remains of these.”라는 귀절이 너무 가까이 뒤따라서 생명의 가능성을 말살하고 있다.

대체로 애도시나 조사는 東西 古今을 막론하고 애도의 대상이 비록 육신은 죽었으나 그 영혼, 또는 정신은 저 세상, 또는 예술 작품 속에, 또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이나 희망으로 끝을 맺는 것이 관습이나 격식이다. 그러나 Pope의 이 비가의 결론에 있어서는 그 여인은 시인의 마음 속에도, 또는 그의 노래 속에서도 영원히 산다는 암시조차 없다.

Poets themselves must fall, like those they sung;
Deaf the prais'd ear, and mute the tuneful tongue.
Ev'n he, whose soul now melts in mournful lays,
Shall shortly want the gen'rous tear he pays;
Then from his closing eyes thy form shall part,
And the last pang shall tear thee from his heart,
Life's idle business at one gasp be o'er,
The Muse forgot, and thou belov'd no more! (75-82)

시인의 마지막 숨과 더불어 인생의 모든 일은 끝난다. 용감하고 위대하게 살고 죽은 여인에 대한 사랑도, 또 그 사랑을 노래한 시도, 영원히 사라지고 그 어느 세상에서도 재생이나 보답의 기약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주제의 의미는 대립하는 두 가치의 충돌이나 화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의 좌절과 패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시에 대한 또 한 사람의 해설자인 Howard D. Weinbrot는 대체적으로 Gillie나 Mack의 견해에 반대하고 여주인공의 궁극적인 패배를 인정한다.⁷⁾ 또한 그는 이 시의 화자가 이성을 잃은 상태에 있다고한 Roscoe의 다음과 같은 논평은 대체로 옳다고 보고 있다.

...this piece is not to be judged by the common rules of criticism. It is, in fact, a spontaneous burst of indignation against the authors of the calamity which it records. Throughout the author speaks as if he were under a delusion, and utter sentiments which would be wholly unpardonable at other times. It is only in this light that we can excuse the violence of many of the expressions, which border on the very verge of impiety. The first line of the poem demonstrates that he is no longer under the control of reason.⁸⁾

6) Gillie, p. 84.

7) Howard D. Weinbrot, "Pope's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 *Modern Language Quarterly*, 32 (1971), p. 257.

8) *Works of Alexander Pope, Esq.* (London, 1824), III, 223-24. Weinbrot, pp. 258-59에서 인용.

Weinbrot는 물론 Roscoe와는 달리 이 시의 화자, 즉 이 비가를 읊고 있는 청년 시인과 Pope를 혼동하지 않는다. 금세기 이전의 대개의 평자들은 이 화자가 자살행위를 정당화하고 찬양함으로써 기독교 윤리를 모독했다고 비난하고, Pope 자신에게 그런 부도덕의 혐의를 돌렸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의 화자와 저자를 구별하고 화자는 시인의 가면(persona)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많은 시의 의미가 분명해지게 되었다. 이 시에서도 Pope는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실성한 청년 시인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성을 잃은 것은 Pope가 아니고 작품 속의 청년이다. Weinbrot에 의하면 아마도 여인은 이 청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좌우간 이 청년은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나머지 그 죽음의 책임을 하늘에 돌리려고하기도 하고 산 송장같은 인간들과 숙부의 탓으로 돌리고 분통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보통 때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말을 쏟아 내는 것이다. 그러나 Weinbrot에 의하면 47행부터는 어조와 주제가 변하여, 화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비록 사랑을 위해서이지만 그 여인의 자살행위는 인간 사회에서나 하늘에 용납되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서, 77행 이하에서는 진심으로 그녀의 운명에 대하여 슬픈 노래로 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천국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청년 시인도 그의 시 속에 그녀를 영원히 살게하지 못하고 그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Weinbrot는 그의 해석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상하게도 이 비가는 시가 아니라 화자의 독백이라고 주장한다.

It seems to me likely that Pope here abjures this convention because, though the poet's "soul now melts in mournful lays"(77), these lays are spoken or perhaps internal anguish of the heart in the intense moments of grief after the Lady's funeral and during the speaker's growing awareness of the enormity of her crime and its consequence. He may temporarily sing her now; but when he dies, she will not be recorded in verse or look youthful in song, even though we are obviously reading a poem.⁹⁾

결국 Pope가 이 시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는 격렬한 감정을 미화하고 자살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흥분상태에 빠져서 자칫하면 이성을 잃을 뻔한 청년시인의 의식을 통하여 그러한 격렬한 감정과 무분별한 행위의 부도덕함과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Weinbrot는 결론짓고 있다.

Pope is not glorifying suicide or the Lady, or deliberately inculcating bad morality. Instead, he is characteristically moral, Christian, and anti-pagan; he shows the disastrous results of suicide upon the Lady's soul, and the pernicious effect upon the angry friend (and probable lover) at first incapable of accepting the frightening truths of divine justice though, finally, capable of forcing himself to accept her rejection from Heaven, life, and art. As Roscoe says, the speaker—in his early rage—is virtually impious, deluded, violent, and no longer under the control of reason. It is the pious, calm, and consistently moral Alexander Pope who shows us the dangers of mind and the dreadful implications for the unfortunate Lady, among them the impossibility of poetic

9) Weinbrot, p. 266.

mourning: she has no poet and is dead.¹⁰⁾

이와같은 Weinbrot의 견해는 여주인공의 운명의 패배를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어야 겠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이 비가가 분명히 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화자가 분명히 그 여인을 노래로 애도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노래가 아니라고 강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자인 청년 시인이 가련한 한 여인의 죽음을 한탄하다가 갑자기 그녀의 잘못을 깨닫고 그녀를 하늘에서 받아들이지 않듯이 그의 시의 세계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또 Pope가 가련한 여인과 다정다감한 청년 시인을 그려 내어 그런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무정한 시인으로 생각하기도 힘들다.

이 시의 의미를 전혀 딴 각도에서 살펴 볼 수도 있다. Pope는 로마의 Augustan시대의 문학을 18세기 영국에 재현하려고 한 시인이었다. 따라서 그는 고전시대부터 전해 내려 오는 여러 장르와 형식의 시를 영어로 재현하려 했고, Elegy도 하나의 전통적 장르이므로 그 전통을 따라서 이 작품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an Jack는 Pope가 Scaliger의 *Poetics*를 유용한 책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비가를 씌에 있어서 Scaliger의 비가 작시법을 참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¹¹⁾ 그러나 이 시의 구조로서는 Pope 자신이 고안한 계획을 따랐으며 이 계획이란 원혼(冤魂)의 액풀이(exorcism)의 의식이라고 단정한다.

Pope's Elegy was clearly 'written by a plan', and elements of Scaliger's scheme may be found in it—though less (one may conjecture) because of Scaliger's precepts than because of the examples of the poets from whose work Scaliger deduced his rules. The centre of Pope's plan is remarkably simple, but also remarkably audacious. His 'Elegy' is a rite of exorcism... The unfortunate Lady, like the ghost of Hamlet's father, cannot rest until a wrong has been righted. This is the principal business of the poem, and it is accomplished by line 68.¹²⁾

액풀이를 비가의 구조로 삼았던 선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Pope의 독창이라면 Jack의 해석은 예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시 초반부의 과장되듯이 격렬한 감정과 어조는 무당이 죽은 사람의 혼과 교통하는 의식의 몸부림이라 볼 수 있고 후반부에 보이는 반복적 어법은 무당의 주문과 같은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y foreign hands thy dying eyes were clos'd,
By foreign hands thy decent limbs compos'd,
By foreign hands thy humble grave adorn'd,
By strangers honour'd, and by strangers mourn'd! (51~54)
What tho' no weeping Loves thy ashes grace, (59)
What tho' no sacred earth allow thee room, (61)

Jack는 또한 Pope가 액풀이의 대상으로서 사랑 때문에 죽은 여인을 택한 이유는 그런 인물이 실제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Joseph Trapp의 말에서 암시를 받았을 것이

10) Ibid., p. 267.

11) Ian Jack, "The Elegy as Exorcism: Pope's Verses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 *Augustan Worlds*, ed. J.C. Hilson et al.,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8), p. 75.

12) Ibid., p. 76.

라고 추측한다.¹³⁾

The chief Subjects to which Elegy owes its Rise are Death and Love,....Elegy, therefore, ought to be esteem'd the most perfect in its Kind, which has somewhat of both at once: Such...where the Poet bewails the Death of... some Youth or Damsel falling a Martyr to Love.

이와같은 Jack의 추측이 틀림없다면 이 비가의 주제와 그것이 쓰이게 된 동기를 Pope의 전기에서 찾는 것은 헛된 일이며, 또 어떤 도덕적 교훈을 암시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Pope는 다만 언어의 예술가로서 고전문학의 한 장르인 elegy의 감정을 표현해 보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가장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랑 때문에 죽은 여인의 한을 달래어 고요히 잠자게 하는 액폴이의 형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해석은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것 이상은 설명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비가가 독자에게 주는 영향력은 매우 커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아 왔다. 예컨대 David Hume은 이 시를 완전히 암송할 만큼 사랑했고, 어떤 눈먼 시인에게 암송해 줬더니 온 몸을 떨며 감격했다는 것이다.¹⁴⁾ Jack의 논평은 매우 학구적이고 신빙성이 있겠으나 이 시가 주는 감동에 대해서는 다만 그 줄거리 속에 원래 담겨져 있다고 밖에는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봐도, 액폴이가 Jack이 지적하는 것 처럼, 68행에서 이뤄졌다면 왜 시가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특히 Tillotson이 "personal coda"¹⁵⁾라고 부른 마지막 문단의 구실이 무엇인지 잘 설명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 비가 전체의 의미는 이 마지막 문단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슬픈 노래를 부르던 시인 자신도 결국은 죽고 모든 것이 망각 속에 사라진다는 요지의 이 종결은 매우 비참한 허무감을 주며, 그 위에서 이뤄 놓은 그 나머지 위로나 액폴이를 취소해버리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이 마지막 문단은 불필요하며 차라리 없는 편이 시의 구조상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 중요한 일이란 다분히 시인 자신의 어떤 갈등 의식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시인은 물론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가공 인물이지 Pope 자신은 아니다. 그리고 이 시에 그려진 얘기는 실화가 아니라 Pope가 지어 낸 허구의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의 인물이 작가의分身일 경우가 허다하며 작가는 등장인물의 가면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常例일 것이다. 그렇다면 Alexander Pope가 그 자신의 여러가지 감정을 마음대로 발동시키고 그것을 순화시킬 수 있는 마당으로서 이 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는 것도 그리 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시가 쓰인 것은 Pope가 29세 때였다. 뛰어난 재능과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청년 시인으로서 그가 異性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신체적인 조건때문에 이성의 애정에 관한 한 항상 열등감에 사로 잡혀 있었고 몸이 정상인 사람처럼 마음대로 애정의 표시를 할 수 없었다. Blount 자매나 Mary Montague 부인 등과 같이 애정이나 연정을 품었던 여인들은 있었으나 서간이나 작품 속에서의 그들에 대한 애정 표시는 매우 조심스럽고 안개에 쌓여 있다. 이런 감정 표시는 신고전주의적인 절제 때문이

13) Ibid., p. 76.

14) Twickenham II, p. 358.

15) Ibid., p. 357.

기 보다는 Pope의 열등의식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도 젊은 시인으로서 끊어 오르는 정열을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작품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이 *Eloisa to Abelard*와 이 “Elegy”일 것이라고 대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Griffin은 Pope의 1710년대의 작품에 대하여 다음같이 평하고 있다.

One can find evidence of Pope's private sensibility at work elsewhere in the poems from the 1710s. The voice attuned to loss and pathos, the voice that stresses an elegiac theme by reference to personal experience, appears in some of Pope's other pems from that period: for example, *Eloisa to Abelard* and the *Elegy to the Memory of an Unfortunate Lady*.¹⁶⁾

여기서 Griffin이 “personal experience”를 다뤘다고 하는 말은 약간 과장되기는 하지만 사실일 것이다. *Eloisa*는 역사 속의 인물이고 불행한 여인은 가공의 인물로서 그들이 처한 상황은 Pope의 상상력이 빚어 낸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볼 때 Pope는 *Eloisa*와 “Elegy”의 청년 시인의 체험을 직접 겪었음에 틀림없다. Pope는 이와같은 사정을 *Eloisa to Abelard*의 마지막 행에서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And sure if fate some future Bard shall join
In sad similitude of griefs to mine,
Condemn'd whole years in absence to deplore,
And image charms he must behold no more,
Such if there be, who loves so long, so well;
Let him our sad, our tender story tell;
The well-sung woes will soothe my pensive ghost;
He best can paint 'em, who shall feel 'em most. (359-66)

이 시에 관하여 Pope는 한 서간에서 Mary Montague 부인에게 “in [the Epistle of *Eloisa to Abelard*] you will find one passage, that I can't tell whether to wish you should understand or not?”¹⁷⁾라고 씌으로써 대단히 미묘한 애정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Tillotson은 이 “one passage”가 361~2행으로 보고 있다.¹⁸⁾ 이것이 사실이라면 366행에 달하는 *Eloisa to Abelard*는 결국 Pope의 Montague 부인에 대한 애정의 고백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비로서 밝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loisa*와 “Elegy”는 다같이 사라진 애인에 대한 걱정을 노래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지만, 또한 최종의 문단이 “Personal coda”라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그리고 *Eloisa*의 진리가 마지막 문단에 있다면 *Elegy*의 의미도 마지막 행에 있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Pope는 한 불행한 여인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 시인 자신, 또는 Pope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ope는 이 시에서 하나의 환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여인의 사랑을 얻는 소망성취(wish-fulfillment)의 꿈을 꾀 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도 배제할 수 없

16) Dustin H. Griffin, *Alexander Pope: The Poet in the Poem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pp. 121-22.

17) Twickenham II, p. 312에서 인용.

18) *Ibid.*, p. 312.

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왜 여인은 죽고, 그의 시에서도 망각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다. 이것은 그 여인도 Pope의 마음의 일부분을 상징한다고 보면 풀릴지 모른다.

이 여인은 Pope의 응결된 여러가지 감정의 상징인 듯하다. 첫째는 Pope의 소외감이다. 그는 영국 신고전주의의 대표적 시인이었으나 실에 있어서는 당시 영국 사회의 중심부에 있지 못했다. 그의 집안은 양반 계급에 속하지 않았으며 로마 천주교 신자로서 온갖 제한과 푸대접을 받은 피압박 계급에 속했었다. 더구나 그의 신체적 결함은 결정적으로 그를 사회에서 소외되는 처지에 놓게 했다. 그의 예민한 감수성이 그를 얼마나 외롭고 괴롭게 했는가는 짐작하기 쉽다. 그가 만약 딴 시대에 태어났었다면 사회에 대한 격렬한 반항자가 됐을 것이다. *Elegy*의 여주인공도 인간 사회에서 버림받고 하늘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소외자이다. 따라서 그녀는 Pope의 소외감의 투사(*projection*)일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슬픔, 자기 연민, 분노, 한탄의 상징임에 틀림 없다. 또한 젊은 시인을 너무나도 사랑한 아름답고 고결한 이 여인은 Pope의 이성에 대한 열등의식을 보상해 주는 여인상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그의 열등의식도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여인은 대단히 복잡함, 그리고 Pope로서는 매우 괴로운 여러 감정의 복합체, 즉 *complex*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전주의 정신을 영문학에 재현하려는 Pope는 이것을 극복하고 망각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것을 망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Elegy*를 썼을 것이다. Jack가 말하는 것 처럼 이 시는 액플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여인의 불행한 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Pope 자신의 감정에 대한 것이다. 그는 현실이 아니라 시적 환상 속에서 이러한 감정의 복합체로 하여금 실컷 발동하고 그 열을 발산케 하여 일종의 정화작용(*catharsis*)을 통하여 그것을 진정시키고 망각하게 하는 과정이 이 *Elegy*의 구조의 흐름일 것이다. Pope의 소외 의식과 열등 의식에서 나오는 분노, 한탄, 원망, 감상주의는 망각되어야 하고 그 이상 그의 시에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여인은 죽어서 그의 마음과 시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Elegy*의 숨은 의미라고 하는 가설을 한번 제기해 봐도 좋을 것이다.